

부영그룹, 전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억원 기탁

국가 재난 상황 때마다 나선 부영그룹... 전국 산불 피해 지원에 동참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7일(목)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이번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부영그룹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 5억 원은 경상도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준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산불이 진화되어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재난·재해 피해가 생길 때마다 성금과 아파트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강원지역 및 동해안 산불 피해를 비롯해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수억 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영 아파트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전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왔으며,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관련 구호자금 기탁 등 해외 재난 피해 현장에도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영그룹 본사사옥전경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영그룹은 모범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

는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 2천여 원이 넘는다.

/이승원 기자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산청 산불 구호 물품 전달

한국숲사랑총연합회(총재 이상암)는 지난 26일 오전 산청군과 하동군 산불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진화 상황 및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구호품을 전달했다.

한국숲사랑총연합회는 이상암 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문성수 경남지역 총재, 김필래 경기지역 총재, 이영순 광주지역 총재, 이정열 전남지역 총재, 이정국 부산지역 총재, 정상명 경북지역 총재, 조한거 충남지역 총재와 김성 사무총장 등 지역총재 17개 시도 총재단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으로 구입한 라면, 방진마스크 5000장·땀, 음료수 등 식료품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산불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화재현장을 찾은 총재단은 소방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지자체공무원 등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산불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확산 저지를 위한 신속한 진화를 당부했다.

한국숲사랑총연합회는 숲 사랑을 통해 숲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숲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12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한 산림청 산하의 전국 규모의 산림보호 단체이다. 이 단체는 또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전국방방곡곡 희망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운동과 무궁화 심기운동도 펼쳐 나가고 있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광산구새마을회, 그린데탕트 평화의 숲 조성 캠페인 공존의 숲 만들기 ‘식목일 80주년’ 나무심기 행사

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지난 25일 새마을 농장에서 평화와 공존의 숲 만들기 사업 및 식목일 80주년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광산구새마을회 유회권협 의회장·백영실부녀회장·안순자문고회장 그리고 21개동 협의·부녀회장 및 회원들 50여명이 참석 하였다.

김준행 명예회장은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여를 통해 선도적인 기후 행동

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실천 활동을 바탕으로 환경 살리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미 사무국장은 이번 평화의 숲 나무 심기 행사에 동참해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숲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덕근 기자



트로트 가수 미스김, 광주소방 홍보대사 됐다 해남 출신 인기가수... 소방정책·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 ‘앞장’

해남 출신 트로트 가수 ‘미스김’이 광주 시 소방홍보대사가 됐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본부 회의실에서 미스트롯3에서 주목받은 트로트 가수 미스김(본명 김제린)을 광주 시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미스김은 2023년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승상을 수상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24년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4위에 올라 실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TV조선 미쓰리랑에 출연하는 등 트로트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스김은 앞으로 광주소방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소방정책과 안전수칙을 알리는 데 앞장선다.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장 계급으로 위촉돼 향후 2년간 소방홍보대사로서 각종 안전 캠페인, 홍보 콘텐트 제작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스김은 “광주시 소방홍보대사라는 뜻깊은 역할을 맡게 돼 영광이다”며 “가수로서 많은 분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처럼 소방홍보대사로서도 시민 여러분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홍주 기자

광주은행-문화신협, 소상공인 지원 ‘상생발전’ 업무협약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협력 지속해 나갈 것”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과 문화신협(이사장 고영철)은 28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협력 분야는 ▲소상공인 및 금융소의 계층 대상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출 관련 업무 상호협력 ▲여신심사, 리스

크관리, 고객관리 기법 공유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다.

양 기관은 금융기법과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을 기조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